

건강한 국민 만드는 사회적기업 '힌두스탄 유니레버'

더러운 것이 묻은 손을 비누로 씻는 일, 우리에게겐 당연한 일이지만 끼니 걱정을 하는 인도의 빈민가 사람들에게는 생소하기만 한 일이다. 손을 씻는 방법을 잘 모르는 그곳 사람들의 잘못된 위생 습관은 설사병 등이 생기는 원인이 되어 생명을 위협한다. 이 사실을 아는 '힌두스탄 유니레버' 직원들은 빈민가로 직접 찾아가 사람들에게 비누로 깨끗하게 손을 씻는 방법을 알리고 있다. 건강을 위한 손 씻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인도의 사회적기업 힌두스탄 유니레버를 소개한다.

정리_ 편집부

참고_ 아름다운 거저말-대한민국 20대 세계의 사회적기업을 만나다(넥스터스 저음, 북노마드)



_ 손 씻기를 모르는 사람, 손 씻기를 권장하는 기업

인도 최대의 생활필수품 제조 기업, 힌두스탄 유니레버. 세계적 기업 유니레버의 자회사인 힌두스탄 유니레버는 인도의 저소득층을 상대로 비누를 써야 한다는 홍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매끼를 걱정해야 하는 빈곤층들은 지금도 단순히 물로만 손을 씻거나 심지어 흙, 모래, 소금 등을 이용해 손을 씻고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음식을 준비하기 전이나 밥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어야 한다는 사실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 실정이다.

비위생적인 생활은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을 위협한다. 실제로 설사병은 해마다 많은 수의 아이들을 고통 속으로 밀어 넣고, 생명을 빼앗아 가고 있다. 설사병으로 사망하는 전 세계 어린이 중 인도 어린이가 30%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힌두스탄 유니레버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을 찾아가 비누로 손을 씻는 법을 가르치고, 깨끗한 손으로 밥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전파한다. 힌두스탄 유니레버가 파견한 위생 전문가는 무조건 손을 씻으라고 권하는 방법 대신 건강과 손 씻기에 대한 퀴즈나 퍼즐 등으로 먼저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손에 형광물질을 발라 물로 씻을 때와 비누로 씻었을 때를 비교하는 등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다.

_ 소외된 여성의 일자리 제공

힌두스탄 유니레버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권장하는 사업도 펼치고 있다. '힘을 주다'라는 의미의 '샤kti 프로젝트(Shakti Project)'가 바로 그것이다. 2천 명 미만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샤kti 프로젝트의 대상이다. 힌두스탄 유니레버는 이 지역에 사는 3만 명의 여성들에게 유니레버 상품을 팔 수 있게 해서 생계를 안정시키는 수단을 제공해준다. 단순히 팔 수 있는 물건을 조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해서 장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 결과 오랫동안 사회에서 소외된 이로 취급받던 가난한 인도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됐다.

힌두스탄 유니레버의 방문판매원이 되기 전까지 집에서 여성의 역할은 아이를 키우고 가정일과 농사일을 돕는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방문판매를 시작하고 나서 자신이 번 돈으로 생활비와 아이들의 교육비를 벌게 되자 성취감은 커지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늘게 됐다.

저소득층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민 힌두스탄 유니레버. 단순히 물건을 파는 기업이 아닌 가난한 이웃들의 건강과 자립을 함께 파는 그들에게 기업이 가져야 하는 사회적 책임감을 발견할 수 있다.